



(그림 2) Versace의 디자인

4. 가야의 유물과 패턴디자인

가야사는 우리역사에 있어서 지워졌거나 혹은 잃어버린 과거이다.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문헌공핍의 장애요인은 공통적 예로이나 특별히 가야시대는 正史인 三國史記에 加耶本記가 누락되므로서 이후 잊혀진 역사로서의 가야를 있게 하였다.

가야사 연구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실학자들에 의해 비로소 관심분야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거니와 정약용은 그의 변진고를 통하여 '신라사를 지은 자는 마땅히 가야본기를 지어야 했으나 김부식이 빠뜨렸으므로 내가 변진고를 지었다'고 하였으며,³⁾ 가야는 해운조건을 이용하여 발전하므로써 신라를 속국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견해를 보였다.⁴⁾

가야는 기원전후 시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 경상도 서부지역에 존재하던 세력집단 또는 국가들의 총칭으로 가야(加倭 : 加耶, 伽耶)·가라(加羅)·가량(加良)·가락(駕洛)이라고도 한다. 한때 가야사는 4세기 후반 무렵부터 6세기 중엽까지 일본의 야마토(大知)정권이 이를 식민지배했다고 하는 '임나일본부설'로 왜곡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후 이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성과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억설을 극복하고, 현재 가야사 자체의 독자적 발전과정이 체계화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⁵⁾

과거 역사를 디자인 전개의 모티브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正史的 사실근거에 기초하기보다는 오히려 신화적 요소나 그에 파생되는 신비주의적 요소에 의하여 훨씬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야의 모호한 역사는 디자인 혹은

3) 김시우, 1995, 「가락국 천오백년 잠깨다」, 도서출판 가락국 서적개발연구원, 71쪽

4) 韓鎭書, 1823 「海東釋史·續」卷 3 地理考3三韓弁辰

5)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한글판, 1993, 1권 85쪽 참조

예술적 소재로서 역설적으로 적합할 수 있거니와 그것은 작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왕성한 상상력을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가야와 관련한 상징 및 유물중 일부를 선택하여 디자인하여 보았다.

가) 상표의 개발

가야 혹은 가야문화를 디자인의 개념으로 하여 섬유관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과제로서 자가상표의 개발은 필수적이다. 가야제국의 시조 김수로왕은 금합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성을 김(金)이라 하였다고 하거니와 그 유래는 고려 문종조 태강년 간에 금관지주사 김양감이 찬술했다는 「가락국기」에 의하면 요약하여 다음과 같다.

천지가 개벽한 뒤에 가야의 땅에는 아직 나라 이름이 없고, 군신의 이름이 없었으며 단지 아홉명의 족장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을 뿐이다. 건무18년 계육날에 북쪽 구지봉에 이상한 소리가 있어 백성들 2300명이 이곳에 모였다.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나는데 들어보니 '여기 사람이 있느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구간들이 '우리들이 여기에 있다'며 대답하였다. 또 말하기를 '거기 있는 곳이 어디냐'하니 다시 대답하여 '구지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황천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 곳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였으므로 이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희들은 산마루에 흙을 파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불에 구워 먹으리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할 것이다"하였다. 이 말을 들은 9간들은 그 말을 좇아 모두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붉은 끈이 내려오더니 땅에 닿았다. 끈이 드리운 곳을 찾아가 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합자를 쓴 것이 있었다. 그것을 열어보니 황금알 6개가 있었는데 둥글기가 마치 해와 같았다. 여러 사람들이 이를 보고 모두 놀라하며 기뻐하였다. 6개의 알을 보자기에 쓴 대로 안고 아도간의 섬으로 가서 책상 위에 놓고 각각 돌아갔다. 이튿날 밝을 녘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을 열어보니 여섯 알이 화하여 통자가 되었다. 용모도 빼어났다. 그중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를 먼저 태어났다 하여 수로라 이름을 지었다. 그가 바로 가야국의 초대 왕 김수로왕이었다.⁶⁾

김수로는 '쇠붙이를 잘 다루는 무리중 우두머리'라는 뜻의 우리 옛말 「금 알띠마로」를 한자표기한 것으로 보아 「알띠마로」 즉 으뜸, 최고,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상표를 삼기로 하였다.

여섯 개의 알 중에 띠를 두른 알이 있어 그중 특별한 것으로 보았고 인의 변천과정을 거쳐 알띠는 으뜸이 되었을 수 있다. 요킨대 최고의 품절이란 인식을 상품명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 머리의 옛말로도 「마로」, 「마로」란 「둥근 것」을 뜻하기도 했다. 일본 옛말로도 「마로」(まろ)는 「원」(丸), 환(丸)을 지칭했다. 현대어로는 마루(まる)이다.⁷⁾ 「둥근 것」의 국제언어표기와 서체 및 심벌마크 결정 등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나) 태양문장의 상징성

태양은 우주의 지고의 힘, 만물을 꿰뚫어 보는 신과 그 힘, 우주의 심장, 존재의 중심이며, 세계의 눈과 낮의 눈, 정복당하지 않는 것, 영광, 광휘, 정의, 왕권을 상징한다. 태양은 눈에 보이는 태양과 눈에 보이지 않는 태양, 감각의 태양과 영지의 태양, 외재하는 태양과

6) 노성환, 1995, 「환인왕권신화」, 울산대학교 출판부 13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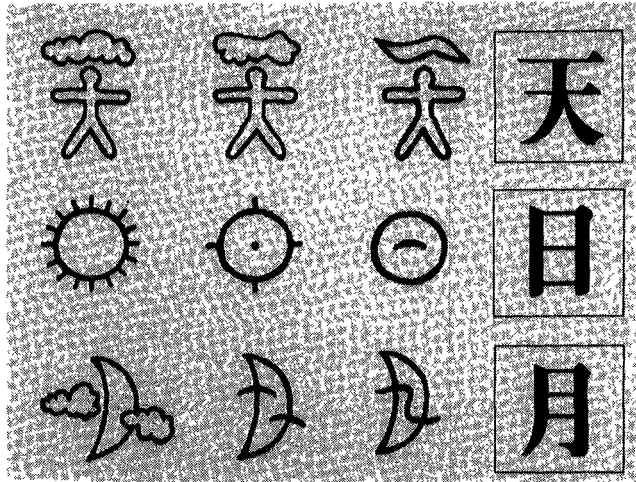
7) 이영희, 「노래하는 역사, 韓·日 옛이야기」, 조선일보 1994. 2. 20(일)

내재하는 태양으로 구분한다. 태양은 항상 일출과 일몰을 반복하며 또한 햇빛에는 활력과 파괴력이 동시에 있으며 태양은 삶과 죽음,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소생을 상징한다.

태양을 상징하는 것은 회전하는 바퀴, 원반, 중심점이 찍힌 원(☉), 방사선이 있는 원, +, 태양빛과 열을 나타내는 직사광선과 파상광선, 백마나 황금색의 말이 끄는 빛나는 태양신의 전차, 세계를 횡단하는 태양선(太陽船), 빛나는 얼굴, 눈, 청동인간, 방사선상의 그물의 중심에 있는 거미, 태양에 속하는 새난 동물이다.

태양은 양의 원리이며 위대한 남성의 원리이다. 대지를 비옥하게 하는 활력, 권력이다. 태양에는 수탉과 다리가 세개인 큰 까마귀가 살고 있는데 세계의 다리는 일출, 정오, 일몰을 상징한다.

태양은 해를 가리키는 한자어로서 본래 해를 본뜬 한자는 ‘일(日)’이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상형문자의 변천

천지만물의 근본을 이루는 음양(陰陽)중에서 ‘양(陽)’의 정수(精髓)를 해(日)로 생각하여 ‘태양’이라 일컬었다.

태양의 신화적 상징의미는 무속신화 천지왕 본풀이나 함남지방의 서사무가 「창세가」에서 보여지듯이 2개의 태양으로 은유되는 태초의 혼돈과 질서이다.

개국신화에서의 태양은 알(卵)이나 일광 등으로 나타나며, 하느님 또는 그 아들이나 국조(國組)를 상징한다. 대표적인 예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동명왕 편이다.

해모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해를 모시는 이이다. 처음 하늘에서 내려올 때 오룡거(五龍車)를 타고 왔다. 그를 따르는 100여인은 모두 흰 고니를 탔으며, 채운(彩雲)이 위로 뜨고, 음악소리가 구름 속에서 울렸다. 웅심산에 머무르며 10여일이 지나 내려오는데, 머리에는 오우관(烏羽冠)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龍光劍)을 찼다. 그리고 아침에는 인간세상에서 살고, 저녁에는 천궁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해모수의 오룡거, 오우관, 용광검 등은 모두 태양이나 일광의 변형된 상징이다. 아침과 저녁의 거처가 다르다는 그의 거동 역시 하루동안의 태양운행을 상징하고 있다.

광개토대왕의 비문에는 고구려의 시조 추모, 곧 주몽은 하느님의 아들이므로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태양의 화신인 군왕에 관한 것은 주몽 뿐만 아니라 신라의 박혁거세와 김

알지, 그리고 가야의 구지봉 난생설화에서와 같이 김수로왕의 탄생에서도 나타난다.

혁거세가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땅으로 빛이 수직으로 내려 왔으며 그곳에 알이 하나 있었으니 이 알에서 나온 이가 바로 혁거세이며 동천에서 목욕시키니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일월도 청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혁거세(赫居世)란 ‘빛과 밝음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김알지는 금빛 찬란한 껍에서 태어났고 김수로왕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신화에서는 왕이 곧 태양이었고, 왕도 스스로 태양의 아들이라 하여 절대적 권능과 신성함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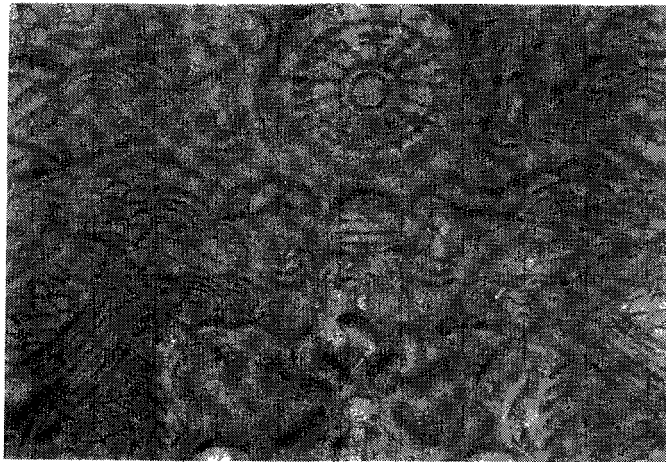
또다른 태양관련 설화로, 동국여지승람 등에 전하는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신라에서는 빛을 잃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에 나타나는 까마귀 오(烏)는 태양의 상징 삼족조(三足鳥)이다. 태양이 절대권력 즉 왕이나 왕권을 상징함은 조선시대 신비들의 시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삼동에 배웃입고 암혈에 눈비 맞아
구름낀 별뫼도 썬 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진다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조 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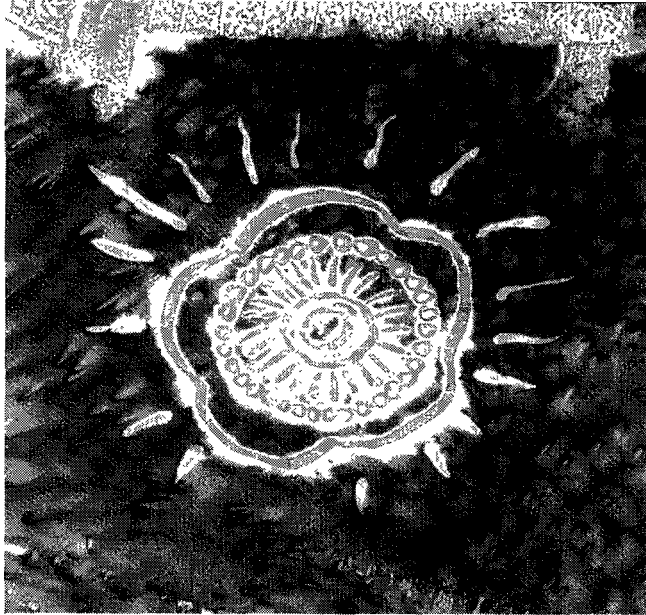
월출산이 높더니마는 미운 것이 안개로다
천왕 제일봉을 일시에 가리었다
두월아, 해 퍼진후면 안개아니 거두랴.
- 윤선도 -

태양이 유일무이한 존재로 높은 곳에서 따뜻한 빛을 온 세상에 보내듯이, 임금도 그러한 상징체로 생각했다.

가야의 경우에 있어서도 태양숭배와 왕권신수사상이 있었으며 태양문상은 곧 가야의 상징이었다. 김수로왕의 비석에 새겨진 태양문양(그림 4~5)을 바탕으로 디자인하여 보았다.



(그림 4) 김해 김수로왕릉 비석에 새겨진 태양문양



(그림 5)

- 가야의 태양문장을 응용한
단독문양디자인
- PET PILLING FABRIC
- 고압분산염료(Disperse dye)
- Spray, salt & Urea dye
- 1995
- 김언배

태양은 생명력, 영원성, 역동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속성 때문에 배면적 상실과 좌절의 의미이기도 한 예가 있다.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뜬다.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 오후에 손수건 만해지면서 나가버린다

- 이상의 날개에서 -

서양에 있어서 태양은 또한 멀고도 영원한 사랑의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Helios)는 안보이는 것이 없었다.(그림 6)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정사를 헤파이트스에게 알려바친 것도, 데메테르에게 그녀의 딸을 납치한 포세이토를 알려바친 것도 그였다. 그 복수로 아프로디테는 헬리오스로 하여금 바빌론왕의 딸 레우코데아에게 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레우코데아의 언니 클리티에는 그보다 앞서 헬리오스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를 억울하게 여긴 클리티에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여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 헬리오스는 죽은 레우코데아를 향나무로 변신시켰다. 대신에 클리티에는 헬리오스의 사랑이 완전히 식은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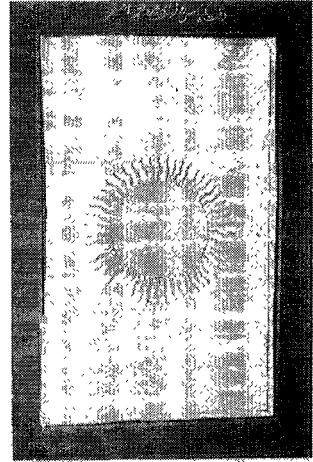
그래서 그녀는 발가벗은 채 쓸쓸한 들판에 누워 9일간을 이슬과 눈물로 목을 축이며 아

무것도 먹지 않았다. 마침내 몸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혈색은 빠지고, 사지는 변하여 광채없는 나무줄기가 되고, 머리는 아름다운 꽃송이로 변하여 그리운 헬리오스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이 꽃이 헤바라기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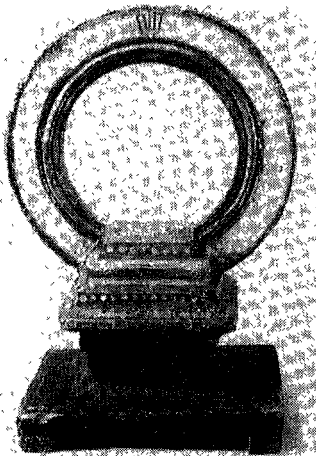
태양신 헬리오스

(그림 6) 태양신 헬리오스



18세기 메갈의 그림으로 원초적인 빛으로서의 태양이다.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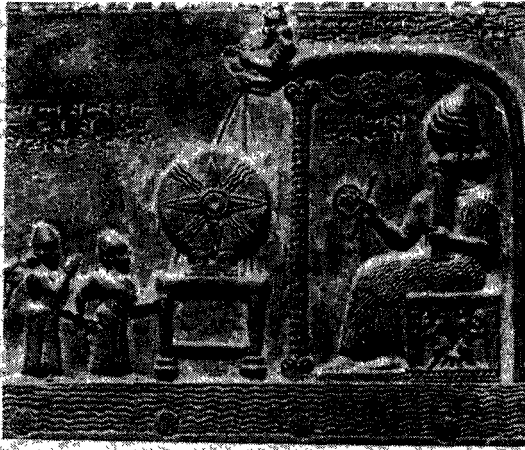


18세기 나무 조각으로 우주의 태양과 달

(그림 8)

8) 한국문화상징사전, 1992, 동아출판사, 600쪽 참조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이폴로는 완벽한 남성미를 갖춘 이상적 청년신이였다. 그는 젊음과 힘과 예능을 한 몸에 지닌 궁술, 음악, 의료, 시, 예언의 신이기도 했다.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자손이라 한다. 그의 성조는 백조이고, 성수는 월계수이다. 그리스인들은 그를 태양신으로 숭배하였다. 바빌론에서는 왕이 태양이었고 잉카제국과 이집트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었다.9)(그림 7~13 참조)



태양 신전의 제전을 그림기원전 9세기의 실형문자가 있는 점토판으로 재현자인 파넬로니아의 왕 나부-이팔-이디나가 태양의 임재臨在를 상징하는 태양 원반의 옆에 공손하게 앉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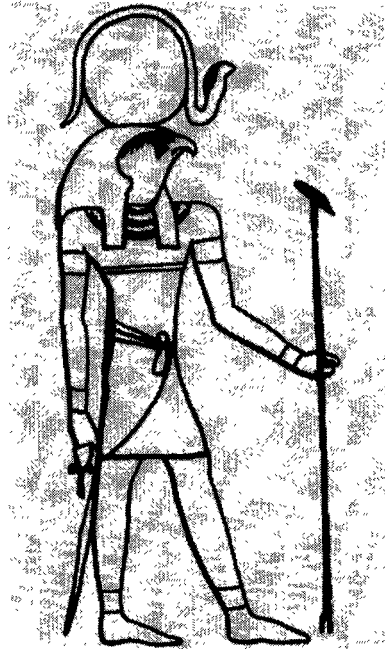
(그림 9)



(그림 10)

신성갑충

이집트, 창조와 일출을 상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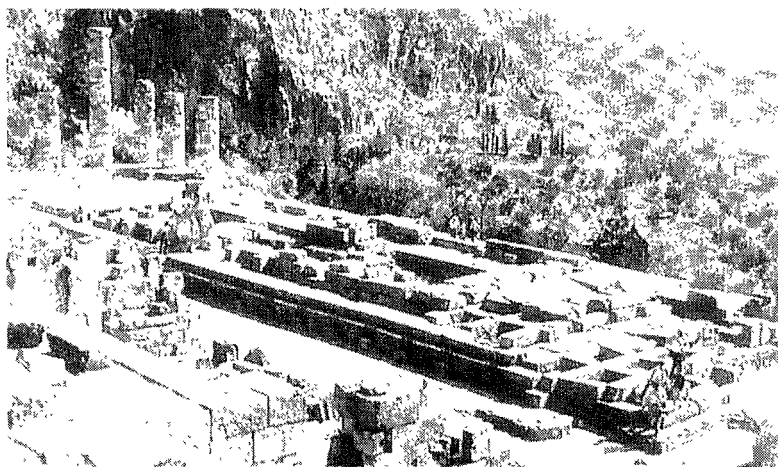


(그림 11) 태양신 라(Ra). 이집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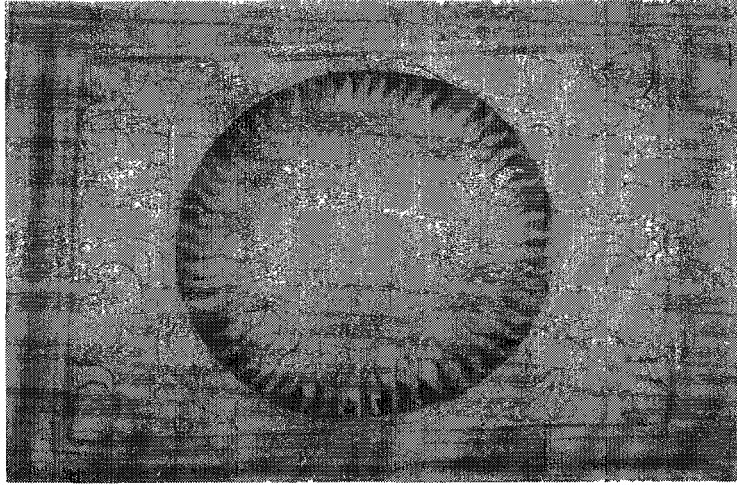
9) 앞의 책 60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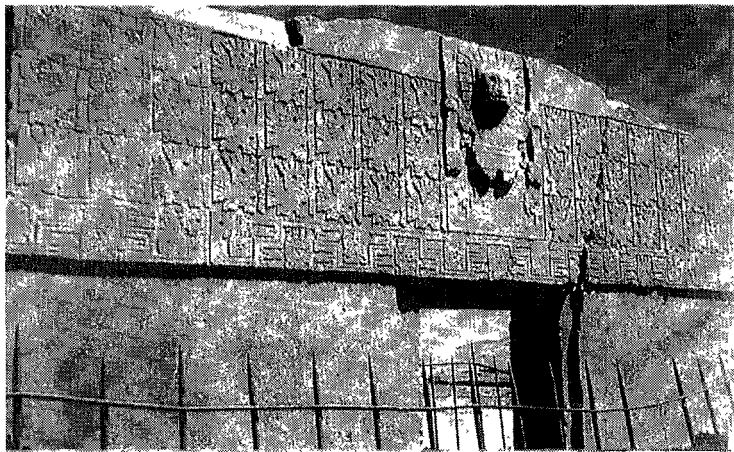
(그림 12) · 태양신 호루스(매의 두상)
· 이집트



(그림 13) · 델포이의 신역
· 그리스
· 태양신 아폴로신전이 있는 곳



(그림 14) · 불치사의 태양무늬
· 스리랑카 캔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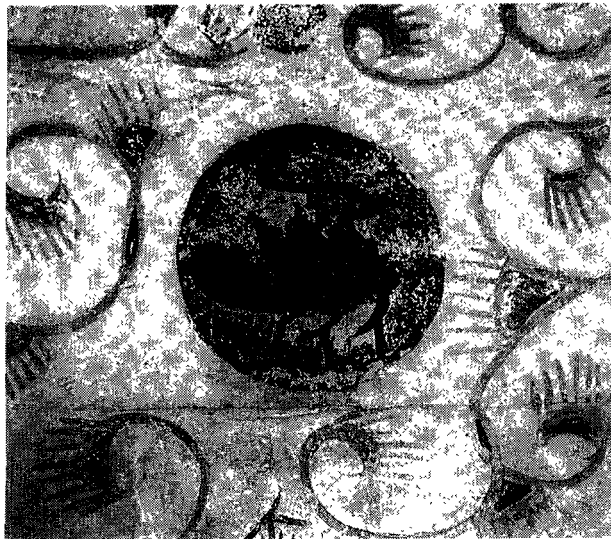
(그림 15) · 태양의 문
· 볼리비아

구구려 고분벽화에는 일월상(日月象)이 그려져 있다.(그림 16) 태양속에서 세발까마귀가 들어있는데 이 삼족오는 태양의 상징이다.(그림 17)



(그림 16) 해의 신, 달의 신

집안(集安)고분벽화, 이중의 천장 층급 받침돌에 그려진 그림이다. 오른쪽에 남성모습의 해의 신이 들고 있는 해 속에는 고대 동양신화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달린 까마귀가 들어있다. 또 맞은편 여성모습의 달의 신이 들고 있는 달 속에는 달의 상징인 두꺼비가 들어있다



(그림 17) 천장벽화의 세발달린 까마귀

다. 물고기

1) 물고기의 일반적 상징의미

물고기는 근대에 생긴 조어(造語)로 추정된다. 물고기는 우리의 생활 문화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징물로서 신의 사자나 혹은 그의 영험력을 신화적으로 의미한다. 세종실록에는 고주몽의 아버지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하백과 수달과 잉어로 각각 변신하는 기록이 있다.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물을 상징하며 어조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무속이나 민속에서는 재액을 예방하는 제물로 사용해 왔다. 고사나 굿을 할 때 북어를 제물로 사용하거나 어촌에서 출어하여 잡은 가장 크고 좋은 고기를 산모집에 가져다주는 풍습은 재액 예방의 상징물이다.

강릉의 양어지 설화에서 보여지는 물고기는 보은의 상징이며 생명력과 건강의 상징으로도 수용된다. 전통 가구에서 보이듯 감시자, 수호신의 기능도 수행한다. 종교적으로는 물고기의 떼지어 다니는 생태학적 습성에 유감하여 군신, 사제 등 상하 혹은 주종관계를 상징하며 불교적으로는 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수행정진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는 물론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의 유감주술에 근거한 것이다.

2) 가야와 물고기(神魚像, 쌍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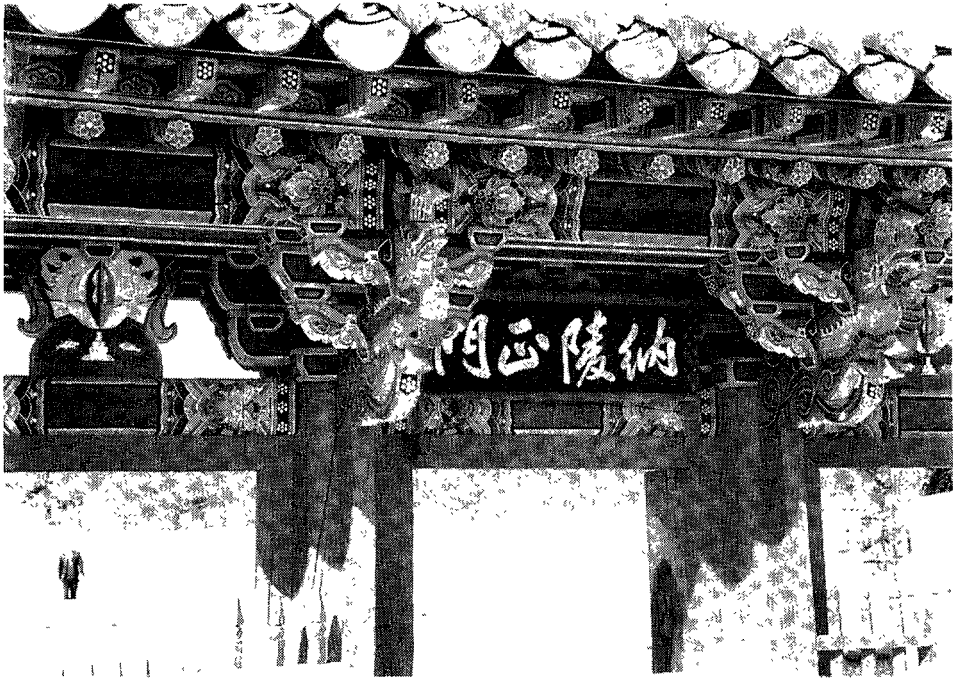
가야의 시조 김수로왕릉의 남릉정문(納陵正門)에는 신어(神魚)로 불리우는 두마리의 물고기가 머리를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 앞뒤로 여섯쌍 그려져 있다. (그림 18), (그림 19)

또 김해의 신어산(神魚山)에 있는 은하사(銀河寺) 큰 법당안의 수미단(그림 20)과 양산(梁山)에 있는 계운사(鷄雲寺)등에도 쌍어문이 있다. 쌍어의 발견지역은 다음과 같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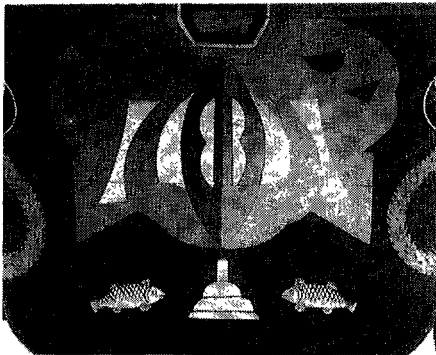
- 김해 수로왕릉 남릉정문 -- 6조
- 김해 수로왕릉 안향각 -- 2조
- 김해 은하사 --- 2조
- 울산 계운사 -- 2조
- 양산 통도사 삼성각 -- 1조
- 양산 내원사 화정루 -- 76조
- 양산 계원사 대웅전 -- 2조
- 제주도 자연사 박물관 소장 상여(喪輿) -- 1조
- 합천 영암사지 -- 1조
- 공주 무령왕릉 출토그릇 밑바닥 그림 -- 1조
- 조선시대 여자의 노리개 및 비녀 다수
- 근대에 제작한 먹

쌍어문은 가야문화권이 지닌 공통요소로서 가야인은 물고기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고 쌍어를 그려 넣음으로서 신성한 장소를 나타냈다.

10) 김병모, 1994, 김수로왕비 허황옥- 쌍어의 비밀, 조선일보 1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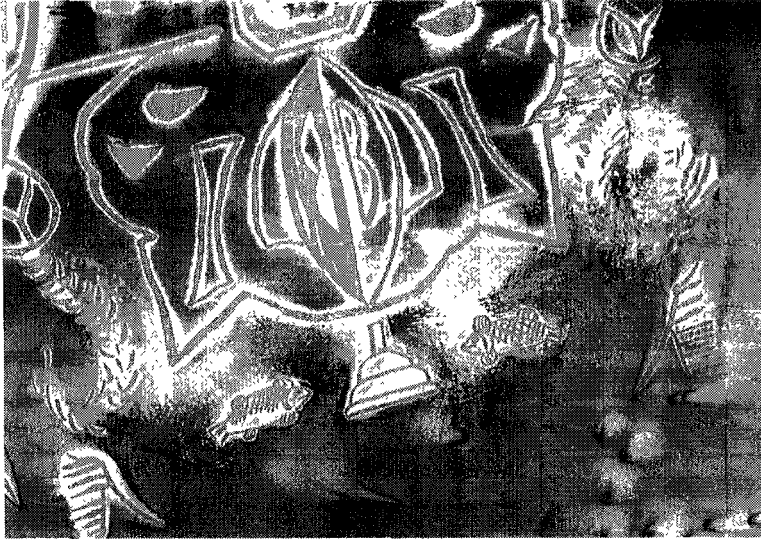
(그림 18) 남릉정문의 쌍어문



(그림 19) 수로왕릉 안향각 문설주 위에 새겨진 쌍어문



(그림 20) 김해 은하사의 대웅전 수미단에 인동초와 더불어 부조된 쌍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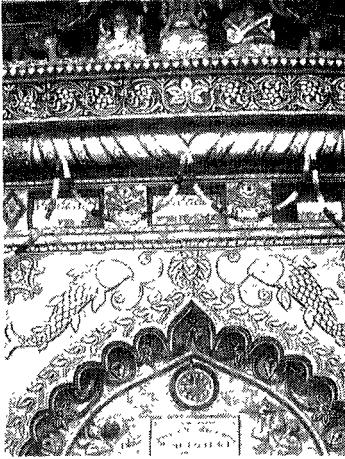
(그림 21)

- 김해 남릉정문의 쌍어문을 응용한 디자인
- 고대 가야왕국의 신비와 환상을 표현
- 1995
- 김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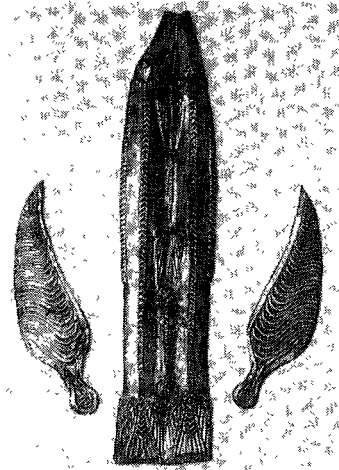


(그림 22)

- 단어와 태양의 눈
- 수호신의 상징과 절대생명의 눈을 중첩하여 복의적 표현
- 1995
- 김언배



(그림 23)
 아요디아의 흰두사원에
 그려져 있는 쌍어문



(그림 25)
 · 중앙아시아에서 발굴된 스키타이
 족이 사용한 마면(馬面)의 쌍어



(그림 24)
 · 「메소포타미아의 고미술」 책자에 수록된
 갑옷형태의 쌍어문
 · 중요문서의 봉인에다 찍었다
 · 보호, 수호의 상징으로 추정



(그림 26)
 · 스키타이족의 마면쌍어를 이
 용한 디자인
 · 1995
 · 김언배



(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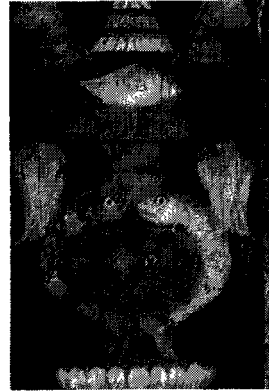
- 몽골수도 울란바토르의 결혼식장

내부장식에 쌍어문이 있다.

- 내몽골지역에서는 물고기가 신성한 동물로 숭앙받고 있으며 국기에도 2마리의 물고기가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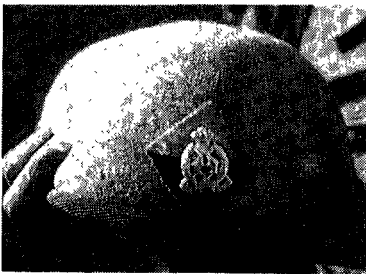
물고기는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있으므로 국가에 위태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이러한 물고기 그림은 중국의 쓰촨성(四川省)일대에서도 발견된다.



(그림 28)

- 네팔 카트만두의 국립 박물관 문장식에 나타난 쌍어문
- 히말라야산의 주산인 쿠베르가 소중히 여겼다는 보배중의 하나가 쌍어였다.



(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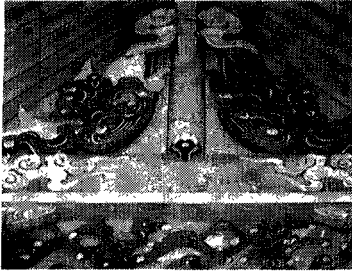
- 인도 경찰의 모자에 새겨진 쌍어



(그림 30)

- 메소포타미아 아수르에서 출토된 수조
- 쌍어는 수신(水神)을 보좌하고 있다.
- 서기전 8-7세기경의 작품
- 베르린 페르가몬 박물관 소장

라) 태상왕



(그림 31)
· 일본 구마모토현 이쓰시로시
후루후모도 이나리 신사의 쌓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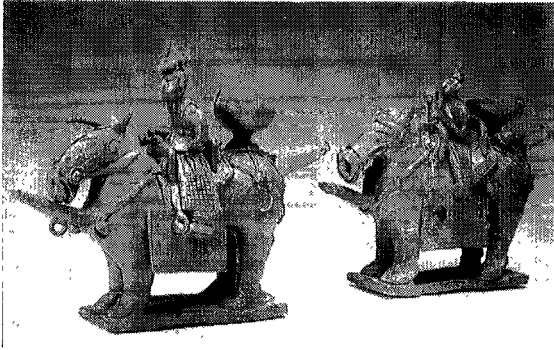
(그림 32) 태상왕의 신체
묘건신궁 사당문이 열렸을 때 팔태극 아래에 신체
는 완전한 편두(編豆;가야 변진의 납작머리)이고
웃웃은 우리의 저고리소매와 같은 것을 입었고 부
적에는 '태상비법진택영부(太上秘法鎮宅靈符)'라
하여 신체가 태상왕(太上王:즉 수로왕릉 구비문에 태
양원군이란 표기가 있고, 수로왕 121세에 양위하고
태양 즉 태상왕으로 있었음)을 가리켜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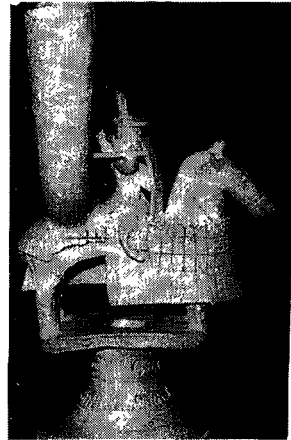
(그림 33) 태상왕의 신체를 응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11) 고준환, 1993, 4국시대 신비왕국 가야 110 - 111쪽 참조

마) 기마인물



(그림 34) 기마인물형 토기, 금련총, 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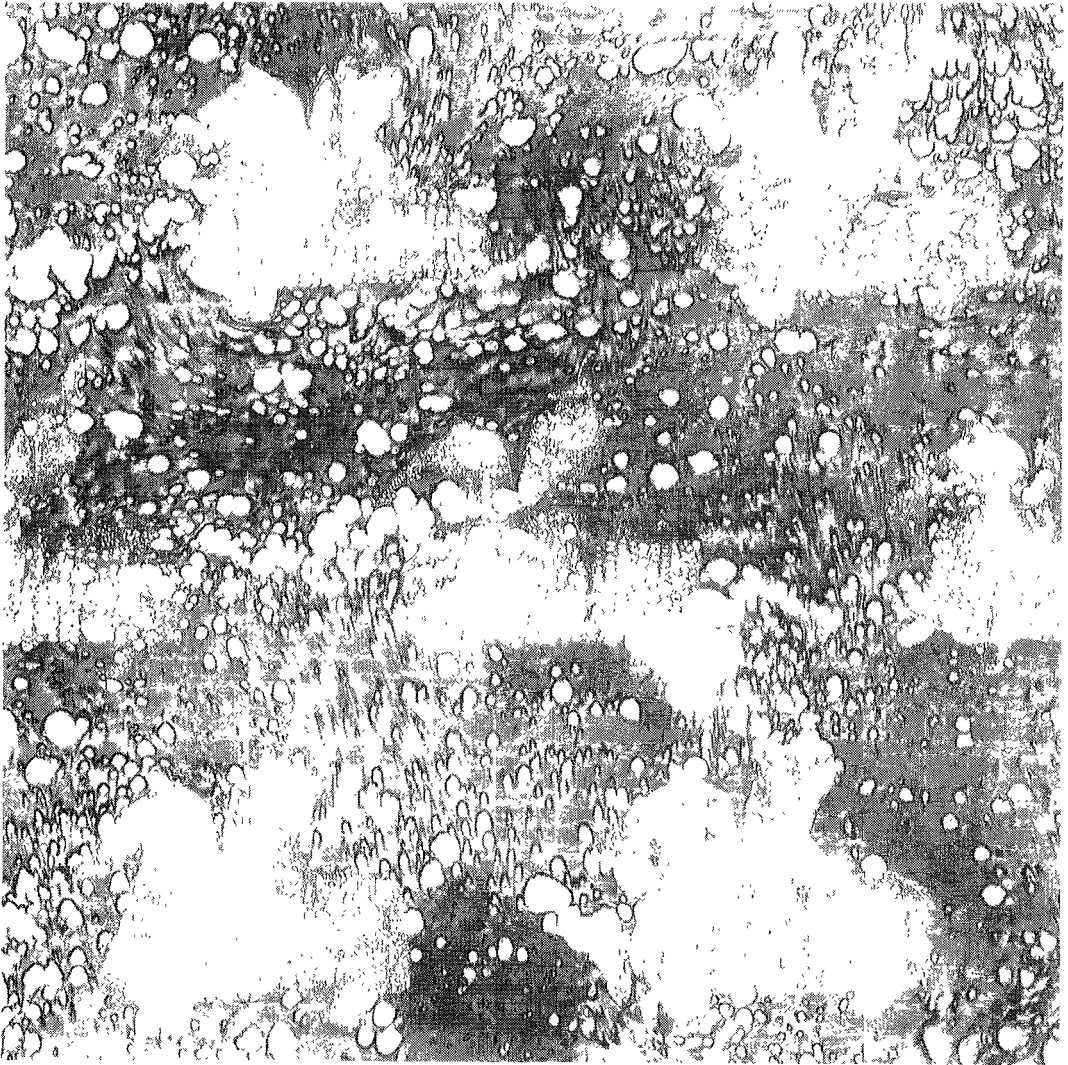
(그림 35)

· 국보 275호로 지정된 「기마인물모양토기」 모양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가야시대 무구(武具)와 마구(馬具)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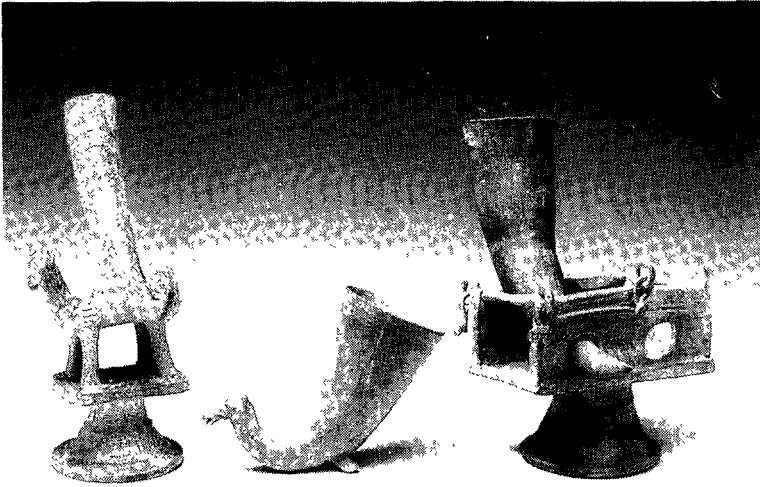
· 가야의 기마인물형토기를 응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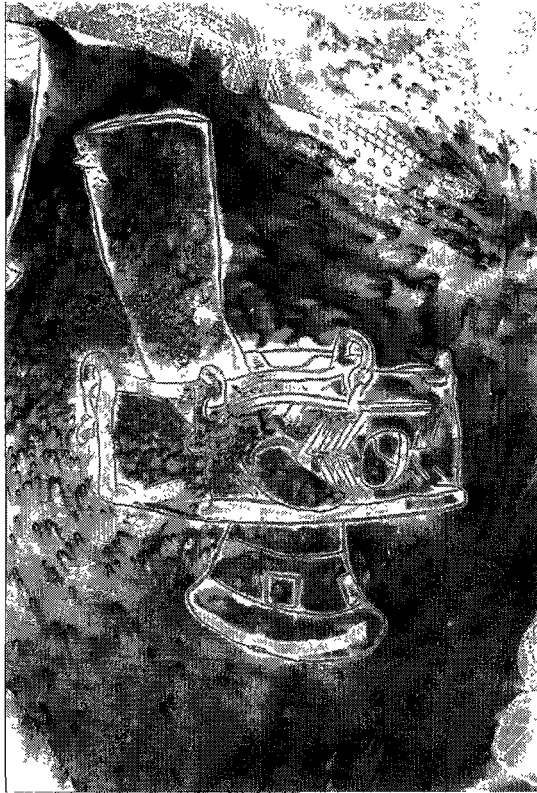
가야: 기마군단 KAYA: HORSE RIDING CORPS, 1500×1500×2400MM, Hand Painting,
Salt Painting 1995, 김언배 作

(그림 37)

· 가야의 기마인물형 토기를 응용·단·부분양화하여 사방인속으로 전개, 평면자표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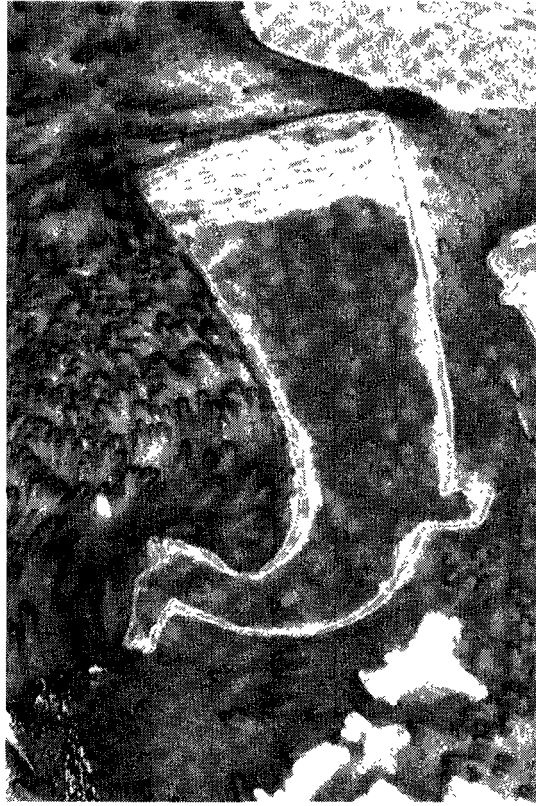


(그림 38) 뿔잔(角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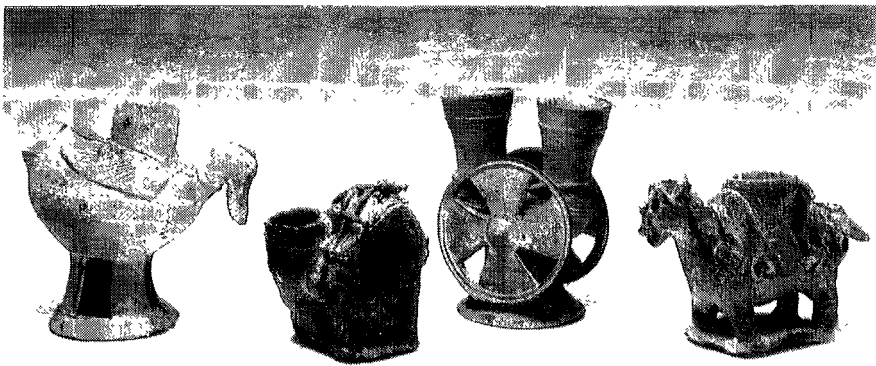
(그림 39)

뿔잔을 응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그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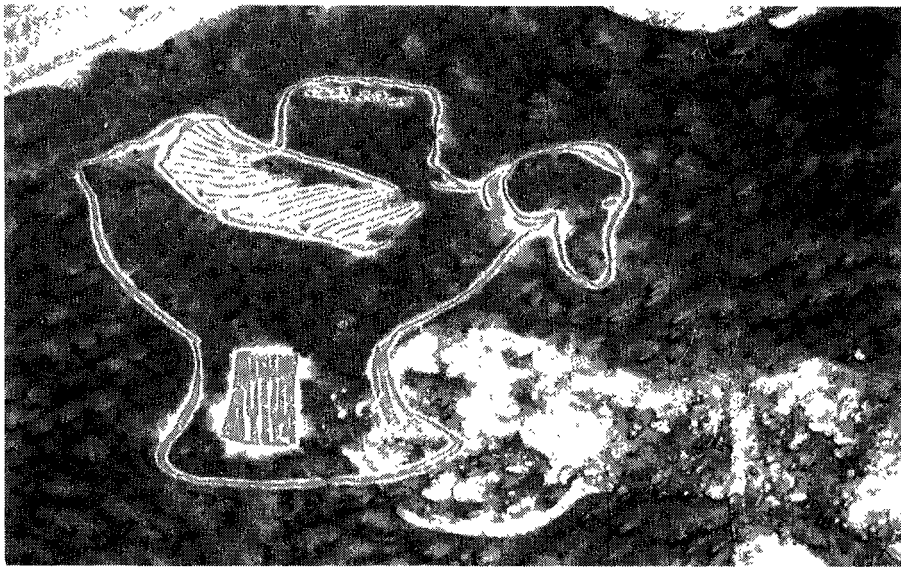
빨간을 응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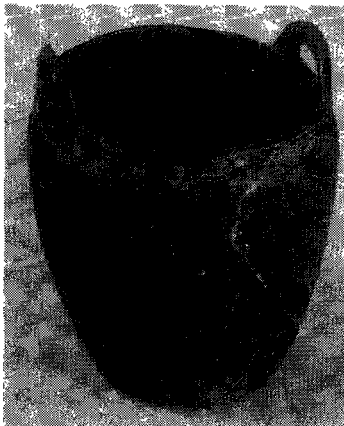
(그림 41)

· 상형토기각종, 높이(왼쪽) 16.2cm

가야토기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회청색 경질토기와 적갈색 연질토기가 있으며 그 종류에도 항아리·목항아리·단지·그릇받침·잔·시루·굽다리접시 등 신라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가야토기는 같은 종류의 토기라도 신라토기에 비해 날렵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으며 신라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집·신발·배·수레·동잔 등의 상형토기(象形土器)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이형토기(異形土器)들이 많아 가야토기로서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가야지역 외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릇모양과 무늬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여 고령군·함안군·김해군 등 여러개의 지역군으로 구 분되는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다.



(그림 42) 가야 상형토기를 이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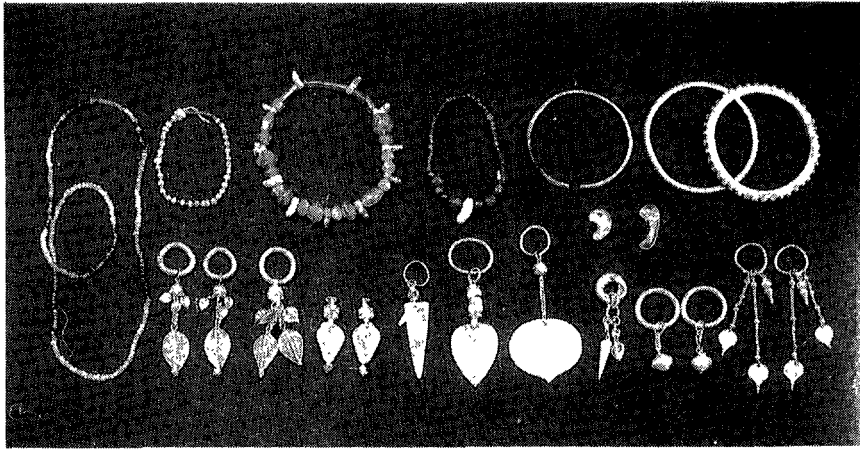
(그림 43) 한반도에서 첫 출토된 동제 항아리
가야 고분에서 발굴된 이동용 취사도구인
동북은 북방계 기마민족 고유의 유물이다.

대성동 출토의 동북은 출토지를 알 수 있는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할 뿐 아니라 南韓에서는 첫 출토여서 이것이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대성동의 것처럼 半圓形의 귀가 둘 달린 동북은 원래 남러시아의 스키타이, 사르마트(Sarmatae)문화, 미누신스크의 타가르(Tagar)期, 훈-사르마트(Hun-Sarmatae)期, 이들과 평행하는 오르도스(Ordos) 청동문화에서 보인다. 즉 서쪽으로는 黑海北岸에서 동쪽의 蒙古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있는 북방유목민들의 특징적인 청동용기이기 때문에 '北方式 동북'으로 통칭되고 있다. 따라서 대성동 출토의 이 동북을 최근 일각에서는 중국제일 가능성을 타진하는 견해도 있으나 중국학자조차 이것을 중국문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각별히 유념할 일이다. 단 이러한 북방식 동북중 반원형이 아닌 'ㄷ'자 모양으로 각이진 귀가 달린 또 하나의 형식이 있는데 이는 흉노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半圓形귀가 달린 전형적인 북방식 동북을 변형시켜 만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성동출토의 이 동북은 형태적으로는 '오르도스'의 그것과 가장 닮고 있지만 나는 '오르도스'지방에서 직접 금관 가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부여의 故地인 중국 吉林省을 성유하였거나 부여의 것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¹²⁾



(그림 44) 동북을 형상화한 디자인,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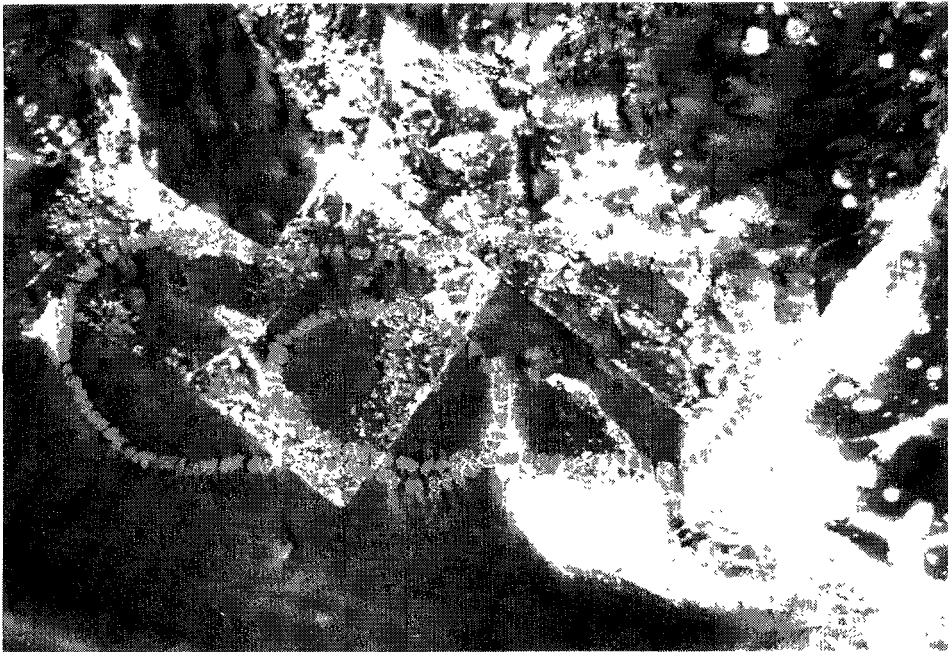
12) 申敬澈, 대성동고분 2차발굴의미-국제신문, 1991 3 29. 금요일 참조.



(그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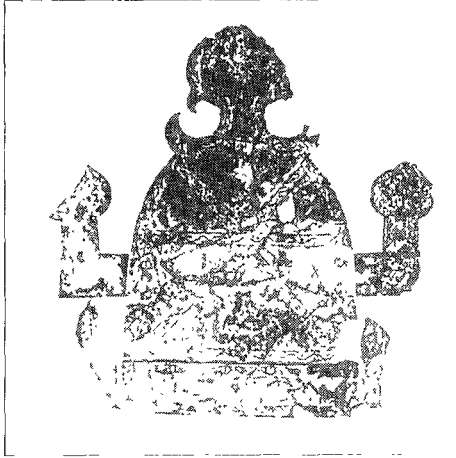
꾸미개 지름(은팔찌) 8.0cm

장신구로는 목걸이·귀걸이·팔찌·반지 등이 출토되는데 신라의 목걸이가 금·옥·유리·수정 등의 풍부한 재료를 이용해 화려하게 만든 반면에 가야의 목걸이는 유리



(그림 46)

가야 꾸미개를 응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그림 47) 금동관, 고령 지산동 제32호분 석실, 가야 금동관 : 금동관은 입식의 형태에 따라 네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위 끝이 보주형이고 좌우 양쪽 가장자리가 세깃같이 생긴 입식 3개를 관대의 앞면과 좌우측면에 잔못 3개를 박아 붙인 것(義城塔里古墳第1墓槨), 둘째는 관대의 앞면에 꽃가지형 장식이 좌우로 각각 1개씩 달린 반원형판 입식을 붙인 것(高靈池山洞第32號墳), 셋째는 관대의 위 끝이 아래로 늘어진 잎사귀형 입식을 붙인 것(高靈池山洞第45號墳第1石室)과 좌우로 작은 가지가 뺏었고 그 위 끝이 보주형인 초화형 입식 3개를 세운 것(星州伽岩洞破壞古墳, 釜山福泉洞第11號墳) 등이다. 넷째는 그 형식을 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관대에 연속 '산(山)'자형 입식 3개를 단 것(昌寧校洞第7號墳, 大邱飛山洞第37號墳第1石室) 및 입식 5개가 달린 것(釜山福泉洞第1號墳)이고 다른 하나는 관대에 연속 '산'자형 입식 3개와 녹각형 입식 2개를 세운 것(梁山夫婦塚主人遺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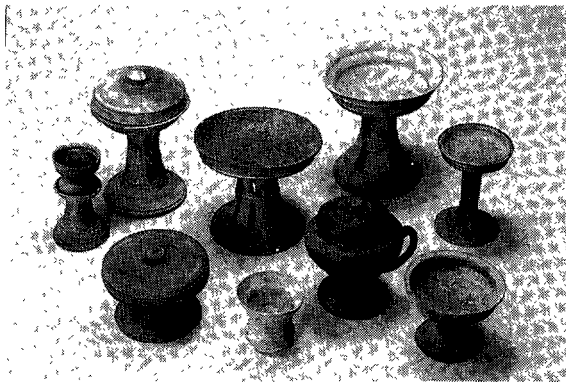
(그림 48)
금동관, 의성탑리고분제1
묘곽, 가야



(그림 49) 금관전고령 지역고분, 가야
금관 : 금관에는 관대의 초화형 입식 4개가 달린 것으로서 초화형 입식은 좌우로 각각 3개의 입사귀가 뺏었고 그 끝은 보주형을 이룬 것(轉高靈附近古墳)이 있다. 또 하나는 관대의 좌우측면에 V자 모양의 초화형 입식이 각각 1개씩 달리고 앞면에는 측면의 V자 모양의 초화형 입식보다 작은 보주형 입식 1개가 달린 특이한 형식의 것(小倉武之助所藏品)이다.



(그림 50) 고령지산동제32호분석실출토
금동관을 응용한 패턴디자인



(그림 51) 고배각종



(그림 52)

고배를 분산배지한 디자인, 1995, 김언배

가야의 고분에 끼묻혀 있는 유물로는 토기 다음으로 가장 풍부한 것이 각종 철제 무기류인데 이것들은 갑옷과 투구 등 방어용 무기와 칼·창·도끼·산주 등의 공격용 무기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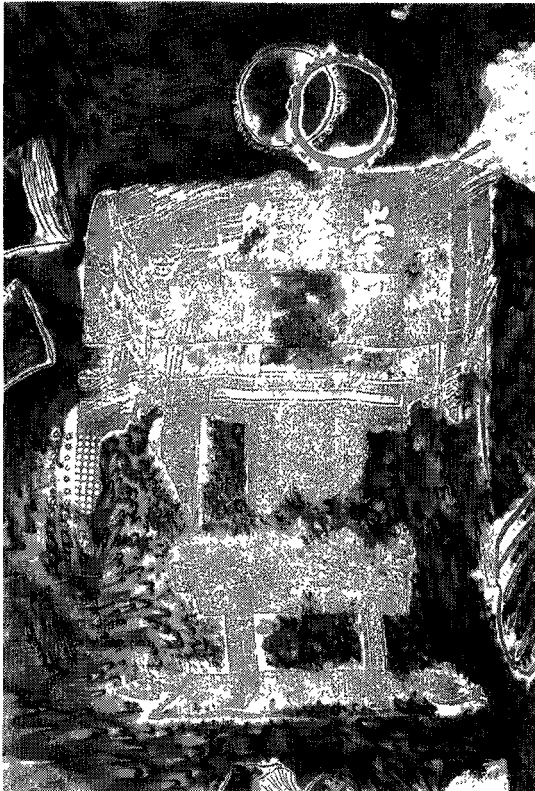
갑옷은 몸을 보호하는 쇠로 만든 옷으로 따로따로 주조된 철판을 겹겹히 하여 만든 판갑옷과 작은 비늘을 가죽이나 천에 덧대어 만든 비늘갑옷으로 구분할 수 있다

판갑옷은 완형으로 복원된 것만도 고령池山洞, 함양 上栢里, 김해 退來里, 부산 福泉洞, 함천 城山里 등에서 출토된 것이 알려져 있으나 비늘갑옷은 안에 댄 섬유질이 다 썩어 없어져 비늘만이 엉겨 붙은 상태로 출토되기 때문에 복원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판갑옷은 일단 착용하면 몸의 신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병용으로, 비늘갑옷은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와 기병용에 적합하다.

투구에는 차양이 달려 있지 않은 세모꼴투구, 차양이 달려있는 모사형투구, 차양은 없으나 정수리에 반구형장식이 얹혀있는 봉고발형투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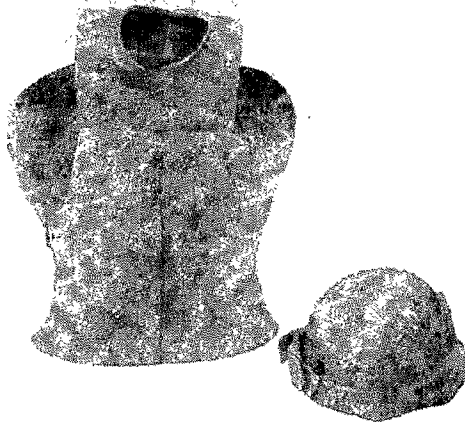
(그림 53) 이형토기를 응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그림 54) 승선전 및 장신구 등을 이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세모꼴투구는 위에서 본 평면이 복숭아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철판을 위·아래로 둥그렇게 붙여 올려 만든 것이다. 봉고발형투구는 휘어진 긴 비늘을 세로로 엮어서 모자꼴을 만든 후 그 위에 반구형의 복발(覆鉢)을 얹어 비늘과 비늘이 접합되고 남은 공간을 막아 장식하고 그 위에 다시 쇠로 만든 봉을 세우고 꼭대기에는 깃털 같은 것으로 장식한 것이다. 모자형투구는 반구형의 앞쪽에 차양(遮陽)이 달려있는 형태로 윗부분에는 보통 짧은 꼭지가 달리고 그 위에 다시 반구형 장식으로 마감한 후 장식을 달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감옷과 투구의 발달과정으로 보아 삼국시대 초기에는 판감옷과 세모꼴투구가 제작되어 사용되다가 보다 발전된 형태인 비늘감옷과 모자형투구가 출현해서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5)

갑옷, 고령지산동 제32호분석실,
가야 층각부 투구, 고령지산동 제
32호분석실 가야



(그림 56) 가야 갑옷을 응
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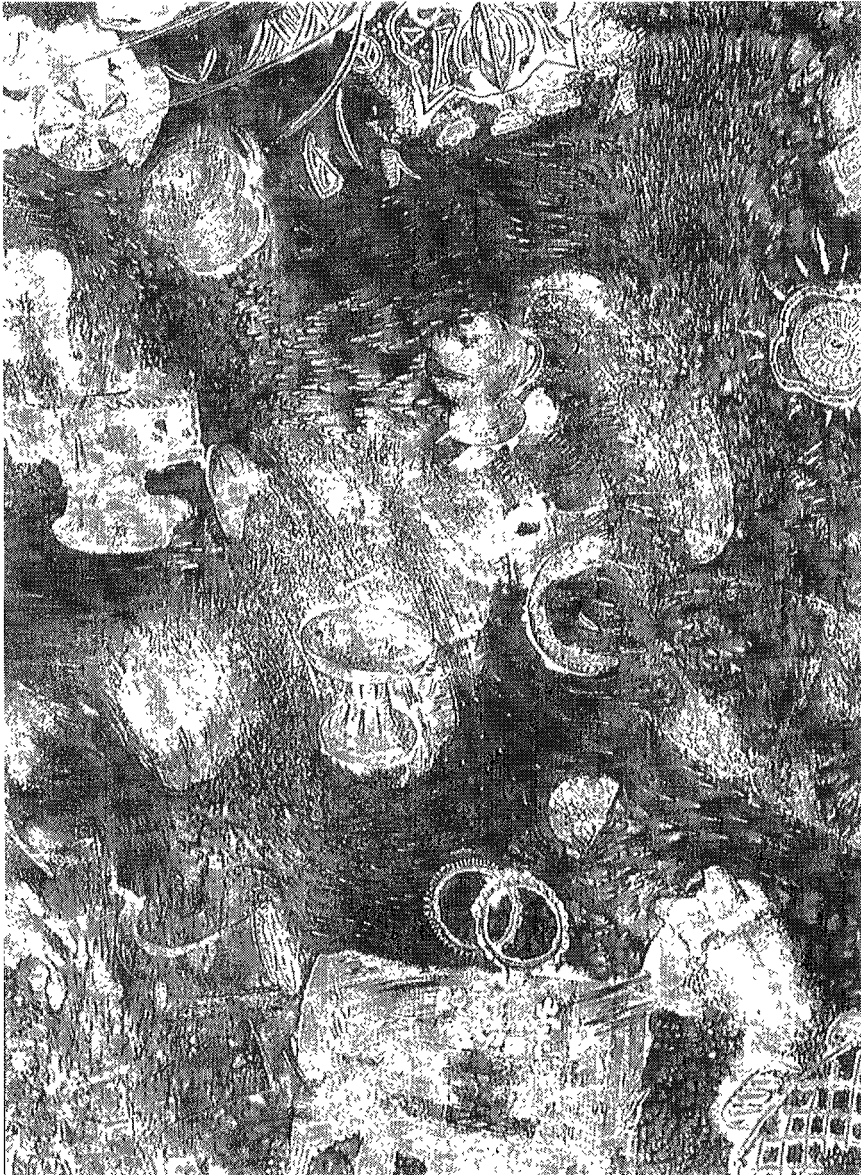


(그림 57) 가야 갑옷을 응용한 디자인, 1995, 김언배



(그림 57)

가야유물을 응용한 Textile Design, 1995, 김언배



(그림 58)
아크릴 칼라로 마감한 작품에
포틀랜드 교류전 출품(1996)

본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의 소재를 가야시대의 전통유물에서 찾아 재구성하므로써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 날염원고작성시 복사기에 의한 O.H.P필름을 사용하므로써 형상이 부분적으로 소멸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질감표현효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3. 텍스타일디자인을 날염생지 위에 직접 제작함으로써 건본제작공정을 줄이고 차별화된 표현기법의 향상을 꾀하였다.
4. 분무염, 소금염, 날염, 수묘염 등 복합적인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므로써 표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5. 폴리에스테르 삼량직물의 내증적 재료를 선택하여 화학섬유와 분산염료의 장점을 유지하였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예술상품을 디자인하여 세계시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인류문화유산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그러한 작업의 기본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加耶史論」, 서울 : 서울출판서비스, 1993
- 고준환, 「4국시대 신비왕국 가야」, 서울 : 우리출판사, 1993
- 김기웅, 「고분유물」, 서울 : 대원사, 1992
- 김대성, 「차문화 유식답사기」, 서울 : 불교영상, 1994
- 김명모, 「김수로왕비 허황옥」, 서울 : 조선일보사, 1994
- 김시우, 「가락국 천오백년 잠깨나」,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5
- 「교과서에 반영된 가야사」, 서울 :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3
- 김태식, 「가야연맹사」, 서울 : 일조각, 1993
- 이영희, 「노래하는 역사」, 서울 : 조선일보사, 1994
- 李鍾恒, 「고대 가야족이 세운 九州王朝」, 서울 : 대왕사, 1987
- 상공부·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구조개선 7개년 계획」, 서울 : 서강중업, 1989
- 천관우, 「가야사 연구」, 서울 : 일조각, 1993
- Gianni Versace and Omar Calabrese, 「VERSACE SIGNATURES」, NewYork·London·Paris : ABBEVILLE PRESS·PUBLISHERS, 1992

(사진)

- 진쿠피 / 이윤기 옮김,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서울 : 까치, 1994
- 한국문화상징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1992

(도록)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통천문화사, 1993
-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서울 : 통천문화사, 1989
- 조선일보사, 「集安고구리고분벽화」, 서울 : 조선일보사, 1993